

무주사랑 상품권 날개 달았다

판매요구에 10억원 추가발행... 2020년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발행 계획도

무주군이 지난 7월부터 발행·유통했던 무주사랑 상품권이 판매시작 3개월여 만에 20억 원 전액 판매고를 달성했다. 환적액도 판매액의 8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무주군이 3개월간의 환전 내역을 분석한 결과, 마트 등 도소매 업종에서의 사용률이 전체 환적액의 33퍼센트

이상을 차지했으며 음식점과 학원, 주유소가 그 뒤를 이어 나타났다.

주민 이 모 씨(38, 무주읍)는 "할인율이 일단 높으니까 장보고, 애들 학원비 내고, 주유하는 등의 생활비를 모두 상품권으로 구입해 사용하면 그게 돈 버는 거더라"며 "발행분이 모두 소진돼서 판매가 잠시 중단됐을 때는 언제 또 나오나 기다리게 되더라"고 전했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이정 지역경제팀 주무관은 "무주사랑상품권은 당초 20억 원 규모로만 발행할 예정이었지만 조기에 판매가 끝나고 군민들의 판매 요구가 잇따르면서 발행 3개월 만에 1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게 됐다"라며 "860여 곳에 달하는 가맹점과 타 시군 보다 높은 구매 할인율(10%), 우체국을 포함한 판매 모든 금융기관(25곳)에서 상품권 판매와 환전이 가능하다는 편리성이 주요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은 다양한 연령 및 사용 층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카드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도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층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카드형 상품권을 먼저 출시한 후 모바일 상품권을 출시할 계획으로 2020년 상반기까지 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을 발행할 방침이다.

카드형과 모바일 상품권은 휴대와 보관이 불편했던 지류형 상품권의 단점을 해소하고 비대면 구매가 가능하다는 장점까지 장착해 사용 확대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이 지난 7월부터 발행·유통했던 무주사랑 상품권이 판매시작 3개월여 만에 20억 원 전액 판매고를 달성했다.

마을활동강사 '문화너름새' 눈길

장수군 1·2기 수료... 수공예 활동·음식 문화 확장 목적

장수군이 마을에 다양한 문화·복지 체험 프로그램을 전하는 마을활동강사육성 프로젝트 '문화너름새'가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장수군에 따르면 '문화너름새'는 장수군이 주최하고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사)장수지역활력센터)주관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1·2기가 마을 활동 강사 수료를 완료했다.

문화너름새 1기(8명)는 문화 활동 강사로서 한지부채와 매듭공예, 비누만들기 등 수공예 활동과 노래교실, 요가, 책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문화너름새 2기(14명)는 일명 '맛난사람들'로 장수군 음식 문화 복원·확장을 위한 마을 활동 강사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했다.

문화너름새를 추진하고 있는 이 지숙 사무국장은 "장수군 문화너름새는 단시간 외부 강사가 투입되어 주어진 시간과 예산이 끝나면 단절되는 것이 안타까워 좀 더 건강한 마을활동을 하고자 기획했다"며 "문화너름새는 일시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인의 성장이 지역 성장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길재 실장은 "문화너름새의 활동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장수군 마을활동강사는 단계별로 마을 특성에 맞게 진행하여 마을과 지역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문화너름새' 1·2기가 마을 활동 강사 수료를 완료했다.

진안군, 4개산 등산로 12km 정비 완료

만덕산 등 6억4000만원 투입

진안군이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고 산림훼손 완화와 생태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최근 4개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산행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올해 덕태산·만덕산 등 4개산 5개 코스 12km의 등산로에 대해 총 6억4000

만원을 투입하여 자연경관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공법을 적용해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덕태산과 만덕산에는 침목계단과 위험구간 내 로프 난간을, 부귀산에는 등산로 협소구간 노면 정리와 확장으로 등산객 편의 제공과 안내관, 이정표 등을 설치했다. 용두봉은 조망권 확보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전망데크를 설치했다.

황상국 산림과장은 "진안군은 안전한 산행을 위해 안내시설 보완과 시

설물 유지관리 등 연차적으로 등산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해 나가고 있다"며 "지속적인 정비사업을 통해 이용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을 할 수 있도록 등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에는 마이산, 구봉산을 비롯하여 17개 산 39개 코스 151km의 등산로와 금남정맥을 포함한 3대 정맥길 78km, 14코스 210km의 진안고원길이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교통 취약지 찾아가는 치매예방프로그램 수료

무주군은 29일 안성면 공진보건진료소와 실천면 구천보건진료소에서 '교통 취약지 찾아가는 치매예방프로그램'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수료증 및 개근상 수여, 기념사진 촬영, 간담회 등의 순으로 개최됐으며 프로그램 수료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무주군보건의료원 조수현 원장은 "교통 취약지 어르신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건강증진을 위해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 편한 곳에서 보다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교통 취약지 찾아가는 치매예방프로그램'은 찾아가는 치매예방서비스의 일환으로 무주군 치매안심센터가

주관해 진행한 것으로, 보건의료 취약 지역에 위치한 보건진료소(6곳) 인근 주민들에게 인지훈련과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제공(7월부터 주1회 2시간씩 총 14회)했다.

참여자 김 모 할아버지(70세, 안성면)는 "내 인생의 2막이 있다면 오늘 인 것 같다"라며 "처음엔 치매도 아닌데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마을사람들과 어울려서 운동도 하고 배우고 하면서 마음이 더 건강해진 느낌"이라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 치매안심센터(무주군 보건의료원 4층)는 치료와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실을 비롯해 검진실과 상담실, 가족카페 등을 갖추고 지난해 7월 개소 후 지금까지 7백여 명에 대한 치매환자 등록을 마쳤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진안군은 7월 1일 기준 지역 내 토지 115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필지는 울상반기 토지이동분(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으로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6일까지 담당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거쳐 산정된 필지다. 전문 감정평가사 검증과 2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지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2월 2일

까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나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진안군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등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여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새단장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센터장 김용태)가 외벽을 새롭게 단장했다.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마을사업지구 지원과 주민 교육, 마을간 네트워크 거점 공간 제공, 외부 방문객 연수 등을 목적으로 2012년 (구)진안군농업기술센터를 리모델링해 만들어졌다.

현재는 마을만들기 관련 13개 단체의 사무공간과 주민교육 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매년 1만여명이 이용하는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거점시설이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지난 2012년 리모델링 후 건물 외벽에 균열이 생기는 등 기능에 비해 외관이 노후화되어 재단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창의적인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색깔로 외벽을 색칠했다. 건물 외부를 총 7개 구역으로 나눠 빨·주·노·초·파·남·보 7가지 색으로 색칠 단장하여 공공기관으로는 보기 드문 디자인을 뽐내게 됐다.

김명기 전략산업과장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다양한 사람들과 단체들이 입주해 있는 곳으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 진안군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를 반영한 디자인이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체육회, 민간체육회장 선거 돌입

장수군체육회가 일부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회장 선거를 본격화하고 있다.

29일 장수군체육회에 따르면 체육회장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제8차 이사회회의 동의를 받아 장수군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7명으로 구성했다.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5개 분야 전문가로 위원장으로는 이내현 위원, 부회장으로는 이순기 위원이 호선으로 각각 선임됐다.

위원들은 선거일을 12월 13일로 정하고 향후 추진일정인 선거인 명부작성과 후보자 등록신청 일정 등을 확정했다. 주요일정은 12월 2~3일 후보자 등록신청, 12월 4일 선거인명부 확정, 12월 4~12일 선거운동기간 12월 13일 선거 등이다.

자세한 선거일정 및 선거관리 규정은 장수군 홈페이지 및 장수군체육회 사무실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민간체육회장 제도는 정치와 체육을 분리해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치단체장들이 체육단체를 이용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